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8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12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)

문의: 제품안전정보과 정승희 과장(043-870-5430), 김종윤 연구관(043-870-5434)
관세청 통관기획과 서재용 과장(042-481-7810), 이의상 사무관(042-481-7841)

불법 · 불량 수입제품 꼼짝마!

- 국가기술표준원-관세청 힘을 모아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힘을 모아 **116만 점의 불법·불량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막았다.**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. 12.(월) 관세청과 함께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*에서 수입 전기용품과 공산품(어린이용품)의 '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' 검사 협업 결과를 발표했다.

* 인천본부, 인천공항, 부산본부 및 평택직할 세관

○ 협업결과 총 1,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, **국가통합인증(KC) 등을 위반한 불법·불량 제품* 총 501건, 물량으로는116만점을 적발**했다.

* 불법제품: 국가통합인증(KC)을 받지 않은 제품(인증미필), 인증 당시와 재질, 성능, 색상 등이 다른 제품(허위표시), 인증번호, 인증마크 등을 누락·오기한 제품(표시사항위반)

* 불량제품 : 유해물질 초과검출,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

□ 적발한 불법·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전기용품은 조명기기(343건, 68%), 공산품(어린이용품)은 완구(95건, 19%)순으로 많았고, 인천세관에서의 적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.

○ 특히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, 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도 포함되어 있다.

□ 이번에 적발한 불법·불량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·폐기하고, 이미 통관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결함보상(리콜조치*) 한다.

* 국가기술표준원 "제품안전정보센터"(www.safetykorea.kr)를 통한 리콜정보 공개

○ 또한,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**국가통합인증(KC)표시를**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(신고수량 11만점) 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.

□ 산업부와 세관이 협업하기 전에는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다.

○ 그러나 관세청의「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」과 국가기술표준원의「제품안전정보시스템」을 협업을 함으로써 불법·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됐다.

○ 정보공유로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공산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*로 위해(危害) 수입제품을 반입 이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.

* 4개 세관에 협업사무소 설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 파견 근무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불법·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※ <적발된 불법·불량제품 촬영협조>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(8/12, 11:00 ~)

<붙임> 불법·불량제품 조사 현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종윤 연구관(☎ 043-870-54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